



# 불교문화계 토끼뽕 새해엔 용트림하길

## 2011년 불교문화계 결산

올 한해 불교문화계의 행보는 거침 없었다. 경제 불황 속에서도 대형 뮤지컬 원효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들이 선보였고, 사찰음식은 세계 속에서 한국 전통문화의 묘미를 알렸다. 불교문화계 한해를 기성도로 표현하면 다도와 사찰음식을 필두로 한 불교문화 전반이 맑음이었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뮤지컬 '원효' 등 공연·전시 붐**  
2011년은 세계적인 작가들이 한국을 찾아 불자들에게 불교정신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전시를 연 해였다. 특히 MBC와 조계종이 공동주최한 창작 뮤지컬 '원효'는 한중수교 20주년 공식 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4월 1차 공연에 이어 11월 앙코르 공연이 진행되는 등 각광을 받았다. 뮤지컬 '원효'는 사극의 편견을 벗어 버리고 음악, 대본, 무대, 의상 등 현대적인 컨셉의 하이테크놀로지 뮤지컬로 대중들에게 보다 쉽고 친숙하게 다가갔다는 평이다. 2월에는 법정 스님 1주기 추모 서화전이 길상사 인근 한국서예관 열려 스님의 법향을 널리 폈다. 법정 스님의 미공개 친필 유묵 10여 점이 전시된 서화전에는 스님을 추모하는 당대 최고 서예가 30여 명이 동참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4월에는 종단 차원의 자선 전시회가 개최됐다. 조계종 종책모임 화엄회와 법화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 갤러리에서 자선 전시회를 개최했다. 선서화전 수익금 3억 원은 로터스월드와 지구촌공생회에 보내져 해외구호 사업에 사용됐다. 6월 20일에는 세계적인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방한했다. 리처드 기어는 예술의전당에서 티베트 승려의 모습을 담은 '순례의 길' 자선 사진전시회를 열고 일반인들에게 수행자의 모습과 티베트 문명에 대해 알렸다. 산사음악회는 산사를 떠나 도심 속 시민의 품으로 찾아왔다. 조계종 문화부와 노래의인문학은 8월 31일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에서 '도심 속의 산사음악회-무소유 노래'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다양한 주제를 선정한 산사음악회를 진행했다. 첫 음악회에는 김현성, 북밴드 윤지이는 꽃, 연극배우 김경락 씨 등이 출연했다. 특히 문화부장 진명 스님이 초대 손님으로 방문해 법정 스님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풀어내 큰 호응이 있었다. 공연 예술은 세계 각국에서 불교 공연이 진행됐다. 한국 불교사상의 정수(精髓)를 음악과 무용, 소리에 담은 종합예술 '영산회상-니르바나' 공연은 7월 13일 이스라엘 정부의 초청을 받아 세계 최대 무용축제 중 하나인 '카르미엘 국제무용제' 무대에 올랐다.

연동회, 지역 대표축제 '자리매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로 관심을 모은 전통축제 연동회는 2011년 종교를 초월한 고품격 문화행사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지역축제까지 확대됐다. 2011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민 화합에 초점을 맞춘 부산지역 연동회는 '불도(佛都)'라는 명성에 걸맞게 2만 명에 달하는 부산시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성대하게 치러졌다. 특히 2011년 연동회는 조계종 5대 결사 중 나눔결사에 부응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문화행사와 경로잔치가 늘어나 의미를 더했다. 세계7대경관 선정을 앞두고 제주도는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연동축제를 개최해 불심으로 제주 발전을 기원했다. 강원도는 설악산 신홍사가 연동축제와 함께 '설악산 신홍사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또 동계승단기출가 수계법회, 무사고 기원 연못 나누기 등 예년보다 훨씬 다채로운 봉축행사를 개최했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템플스테이, 사찰음식도 세계서 원터플! 한국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한 템플스테이도 정부예산 축소 여파에서 벗어나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독일관광박람회(Internationale Tourismus Borse)에 '생명존중 사찰과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참가해 최우수부스 아시아부부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사찰음식을 소개하는 강연과 시사회는 독일 양배추를 활용한 쌀밥, 들깨 두부탕 등 요리법을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도 팔만대장경 인경 체험, 발우 전시, 템플스테이 홍보 동영상 상영, 템플스테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더 나아가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외환은행은 11월 28일 '외국인 고객 업무제휴 협약식'을 체결했다. 외환은행이 선정한 외국인 VIP 고객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게 하는 팸투어를 제공하며 '감성 마케팅'에 나선 것이다. 또 템플스테이 '엔북'도 11월 22일 교계 최초로 출시돼 전세계에 동시 배포돼 템플스테이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한국의 사찰과 예절, 그 의미 등을 스마트 매체를 통해 전했다. 채식 문화 확산의 선두주자로 사찰음식도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았다. 조계종은 4월 사찰음식교육관 '향적세계'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교육에 나서는 한편 목동 국제선센터에 사찰음식전문 3호점 발우공양 '공감'을 오픈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한국 사찰음식의 날' 행사를 통해 사찰음식에 대한 호평을 받은 바있는 조계종은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생명과 평화를 위한 음식의 날' 행사를 열고 사찰음식을 선보였다. 특히 갤러리 라파예트 백화점에서 사찰음식을 시연하고 푸드코트에 사찰음식 전문점을 입점하는 성과를 올렸다.

# 호수에 비친 일본의 불교미술

국립중앙박물관, 2월 19일 까지 일본불교미술展

일본의 시가현(滋賀縣)은 동서로 길게 누워 열도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 그 중앙에 일본 최대의 내륙 호수인 비와호(琵琶湖)가 자리잡고 있다. 비와호의 남쪽으로는 일본 천태종의 발상지인 히에이산(比叡山)이 솟아 있고 이 산을 넘으면 일본의 천년 고도 교토의 시가지가 펼쳐진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으로 시가현에는 일찍부터 중앙의 불교문화가 빠르게 유입돼 발전할 수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2012년 2월 19일까지 일본 문화청, 규슈국립박물관 및 시가현과 공동으로 특별전 '일본 비와호 지역의 불교미술 - 호수에 비친 극락왕생의 염원'을 개최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본미술명품전'이 개최된 이후 10년 만에 일본의 문화재들이 다시 한 번 서울을 찾았다. 이번 전시에는 시가현 오쓰시(大津市)에 위치한 시가현립비와호문화관의 기탁·소장품을 중심으로 국보 4건, 중요문화재 31건을 포함한 시가현의 불교미술품 59건 94점이 소개된다. 전시에는 가마쿠라 시대의 대표적인 불화 '육도 그림(六道)'(13세기, 국보), 진소지 소장 '화룡(華龍)'(12세기, 국보), 엔라쿠지 소장 '보살화 문양 경전함' (1031년, 국보) 등 중앙의 영향을 받은 화려한 불화와 공예품과 함께, 조후쿠지 소장의 '십일면관음입상' (11세기, 중요문화재),



13세기 가마쿠라 시대에 제작된 '귀자모상'은 기독교 문화의 성모자상과 비슷한 구도를 보여 주지만 당시 일본 시가현 지역의 고유한 불교미술을 드러낸다. 온조지 소장의 '귀자모상' (13세기, 중요문화재) 등 시가현의 독특한 지방색을 느낄 수 있는 조각상들이 전시된다. 우리에게 일본 시가현과 비와호 지역의 불교문화는 낯설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지역은 조선통신사가 왕래하던 길인 '조선인가도(朝鮮人街道)'가 위치한 지역이어서 우리 문화와의 관련이 깊은 곳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시가현의 불교미술품을 보면서 화려한 중앙의 문화와 소박한 지방 문화의 절묘한 조화를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2077-900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김생·서산의 붓글씨를 만난다

서예의전당 서예傳 특별전

서예역사에서 화두가 된 두 성인이 있다. 중국이 왕화라면 한국은 김생(金生: 711~791)이다. 위진시대의 왕희지가 이전의 전서(篆書), 예서(隸書)를 토대로 글씨의 법(法)을 세웠다면 김생은 통일신라 이전의 삼국 글씨를 토대로 우리나라 서예의 법을 세운 사람이다. 김생을 일컬어 해동서성(海東書聖)이라 한다. 글씨로 성인의 경지가 이르렀으니 필신(筆神)이라 할 만하다.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은 김생 탄생 1300주년을 맞아 김생을 중심으로 뿌리를 두는 고려·조선 명필(名筆) 걸작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2012년 2월 12일까지 개최하는 1부 전시는 '김생과 그 후예들 - 한국서예걸작

30'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김생의 유물 20여 점을 포함해 최치원, 단연, 안평대군, 이항, 한호, 서산대사, 이광사, 김정희 등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 지정 보물 10여 점을 포함한 한국서예 걸작 30여 점을 선보인다. 2부 전시는 2012년 2월 13~3월 4일 '도를 듣다[聞道]-김생과 권창륜·박대성, 1300년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다. 1부와 공동 전시품인 김생 관계 유물 외에 김생과 신라에서 예술혼을 구한 현대화가 박대성과 권창륜의 그림·글씨가 선보인다. 예술의전당은 "한자 문맹에 가까운 정도의 우리 일상 문자생활에서 서예가 점점 설 땅을 잃어가는 듯 하지만 이번 기획전을 통해 '한자'와 '서예'가 우리의 문자다자인, 타이포그래피의 역사임을 생생하게 확인하는 현상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580-1300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창사 18주년 기념

## 부처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 순례

미안마

- ◇ 미안마 성지순례 출발 : 2월 7일, 2월 24일
- ◇ 미안마 완전정복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혜호 7일 1,840,000원

3월 출발

- ◇ 양곤 | 바간 | 혜호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6일 - A형 1,690,000원 B형 1,650,000원
- ◇ 양곤 | 바간 | 혜호 |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 A형 1,840,000원 B형 1,790,000원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팀, 호스가 포함, 유류할증료 불포함

- 「땀대! 특가」 라오스 문화탐방 성지 순례 1,399,000원 부터
-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엘립 앙코르왓" 1,049,000원부터
- 하와이 5~6일 (요금문의)
-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미안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극

## 마하연투어 ☎ 02)365-7747

##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 목초수액시트

잠자기 전 발바닥에 붙이면 몸속 노폐물 등 제거, 아침이 장쾌! 가뿐!

new

발바닥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급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전 발바닥에 붙였다 떼어내면 불필요한 수분이 갈색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바닥 외 무릎, 허리, 어깨, 팔 등에도 사용가능 불필요한 수분 흡수 갈색변화 눈으로 직접 확인!!

★ 이런 분께 권해드립니다 ★

- 팔,다리,무릎이 안 좋으신분
- 어깨,허리때문에 고생 하시는분.
- 운전자,수면이 부족한 사람.
- 몸이 무겁거나 항상 피로 하신분.
- 오랜시간 서서 일하는 사람.
- 가사에 지친 주부님.
- 공부하는 수험생.
- 연로하신 노인분.

주문 및 상담 02)4444-595 / 010-7255-6668

주문즉시배달(1~2일) www.BB21.com